

2013 WHO-FIC 연례회의 결과 보고

2013. 11. 06. 인구동향과

I. 출장 목적

- 국제사인선정준칙 및 국제사인선정자동화시스템(IRIS) 개정 사항 등 최근 국제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개정 현황 파악 및 국내 적용 검토

II. 출장 개요

- 회의명 : 2013 WHO-FIC 연례회의
- 기 간 : 2013. 10. 16.~ 10. 19.(3박4일), 총회 참석
- 장 소 : 중국(베이징)
- 출 장 자: 인구동향과 전택련

III. 주요 회의 결과

가. 국제사인선정기준 개정 사항

- 사망자문그룹(MRG, Mortality Reference Group)에서 논의
 - WHO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개정 내역 통지 예정
 - . 70건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추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15건을 개정위원회(URC)로 전달
 - . 200여건의 사인테이블 개정사항을 검토 후 국제자동사인선정 시스템(IRIS)에 적용될 예정
 - 참고로, ICD-11 개정을 맡고 있는 mTAG(Mortality Topic Advisory Group)과는 별개로 활동함

나. 국제사인선정자동화시스템(IRIS) 진행 상황

○ IRIS 개요

- 다중사인코딩 및 원사인 코딩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 ① 언어와 독립적인(language-independent) 시스템을 제공하고
 - ② 자료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스웨덴, 독일이 IRIS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

○ IRIS 구성 요소

- IRIS는 미국 보건통계센터(NCHS)의 사망자료시스템(MMDS)*의 구성요소 중 MICAR과 ACME를 사용함

* MMDS(Mortality Medical Data System) : 사망 진단서 자료의 입력, 분류 및 사망정보 추출을 자동화하기 위해 NCHS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영어 외의 언어로는 활용할 수 없음

MMDS 구성 요소			
Super-MICAR	MICAR	ACME	TRANSAX
사망원인표현을 사전을 통해 수치형 개체로 변환	변환된 자료에 ICD 코드를 부여하고 다중사인코딩 규칙을 적용	ICD 코드에 WHO 원사인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원사인 선정	ACME 결과를 통계 형식에 맞게 변환

○ IRIS 활용 관련

- IRIS 시스템 다운로드는 무료임
- IRIS를 관리 및 시의성 있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IRIS Institute에 연간 5,000유로~10,000유로 상당의 지원비 지불 필요
- IRIS 시스템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훈련비 지불 필요

○ 국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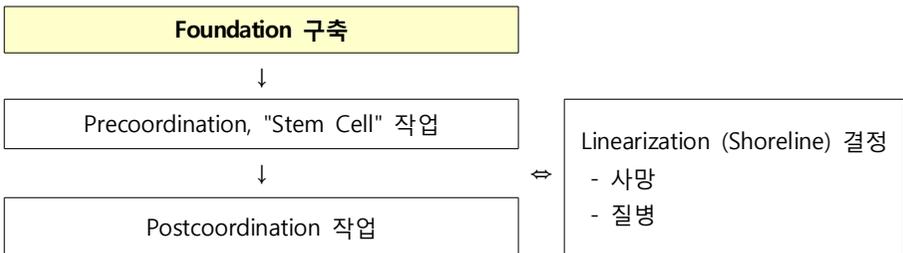
- (MMDS 업데이트 중지) NCHS에서 2011년까지만 MMDS 자료를 제공하고 그 이후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통보함
- (WHO-FIC IRIS 지속 업데이트) WHO-FIC의 IRIS Institute에서 업데이트 사항을 자체적으로 작업하여 제공 지원
 .2012년 사망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11년 MMDS 설치 후 IRIS 홈페이지에서 2012년 업데이트 자료 다운로드를 통해 자동 원사인 선정 작업 수행 가능

다. ICD-11 개정 진행 현황

○ 개정 추진 일정

- 2013년 : ICD-11 Beta version 및 Field Trial version 완료
- 2014~2015년 : Field Trial 예정
- 2015년 : WHA 승인을 위한 최종 버전 완료
- 2016년 : WHA 승인
- 2017년+ : 시행 예정
- 국가별 시행은 국가별로 자체 결정

○ ICD-11 작성 작업 과정



○ 코드 생성 우선순위 변경

- ICD-10과 비교할 때, 코드 생성을 위한 여러 항목의 우선순위가 변경됨

<예시> 판막 질환(valve disease)

우선순위	ICD-10	ICD-11
1	병인 인과관계(etiology)	판막(valve)
2	판막(valve)	판막 문제 종류 (kind of valve problem)
3	판막 문제 종류 (kind of valve problem)	병인 인과관계(etiology)

○ ICD-11 개정 시행 일정에 대한 회원국 입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 ICD-11의 불안정성 및 검증 부족, 국가 적용 가능 여부 불확실 등의 이유로 예정된 시기에의 시행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
- 특히, 사망자문그룹(MRG)에서는 질병분류 체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통계 작성을 위한 사망 결정테이블 작성 및 검토까지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시행 시기에 대해 우려

라. 기타 사항

○ 교육시행위원회 관련(EIC, Education Implementation C.)

- 2014. 3월경 국제원사인자격 시험 예정
- 2013. 12월경 ICD training tool 개정판 공개
- 2013. 11월경 ICF training tool 개정판 공개
- ICD-11 field trial 매뉴얼 작성 준비*
- ICD, ICF Database 구축(Beta.who-fic.nl)

*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 ICD-11 field trial 작업 수행 의사 밝힘

- 정보과학용어위원회 관련(ITC, Informatics and Terminology C.)
 - ICD, ICF 등 분류 업데이트 플랫폼 개선
 - 다국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

- 개정위원회 관련(URC, Update and Revision C.)
 - 121건의 ICD-10 개정안 및 40건의 ICF 개정안 승인
 - ICD-10에서 ICD-11으로의 이행 작업 추진
 - ICF 업데이트 플랫폼의 이용자 가이드 이용 가능

- 기능장애분류위원회 관련(FDRG, Functioning and Disability RG.)
 - 65건의 ICF 개정안 승인 및 79건 개정안 보류
 - ICF e-러닝 자료 2013.11월 완료(WHO 홈페이지에 제공)
 - ICF alpha2 version 2014년 구축

IV. 국내 적용 검토

가. 국제사인선정기준 개정 반영

- 업데이트 상세 내역 자료를 토대로 국내 자동원사인선정시스템에 수정·보완하여 사망(원인)통계 정확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나. 국제사인선정시스템 도입 검토

- 국내 자동원사인선정시스템 정확도 검토
 -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원사인선정시스템 (P-Death)은 국내 통계 생산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음
- .국제사인분류기준 적용(NCHS의 ACME 적용)
- .국내의학용어사전 구축(약 96,000개)
- .사망신고자료와 관련 행정기관 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 하지만, ACME가 국내 시스템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정확을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 IRIS 도입을 통해 국내 시스템의 사인분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사항 발견 및 보완
 - ⇒ IRIS 무료 버전을 대상으로 테스트 후 유료 버전 이용 결정

다. ICD-11 사망원인통계에의 적용

- ICD-11 시행 시기가 아직 WHO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통계기준과의 ICD-11 도입 및 KCD 개정 일정 계획에 맞춰 사망원인통계 작성에 적용

V. 향후 일정

- 2014년 MRG mid-year meeting : 프랑스(리용), (2014.3)
- 2014년 WHO-FIC 회의 : 스페인(바르셀로나), (2014.10)